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02호 【루계 제24615호】 주체103(2014)년 7월 21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스위스 이딸리아어지역 공산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스위스 이딸리아어지역공산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스위스 이딸리아어지역공산당대표단 단장인 알레싼드로 루치니 정치부비서가 20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각하께

위대한 령도자각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아프리카의 자주적발전에 관한 지역인터네트토론회 참가자들인 저희들은 주석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그이를 회고하면서 이 편지를 각하께 삼가 드립니다.

꽁고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사이의 단결과 련대성에 기초한 외교관계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호상 수립할것을 결정한 때로부터 저희들은 평화와 자주적발전, 국제적련대의 정신을 발휘하신 두 나라 령도자들의 관계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주체사상은 현 세계를 환히 밝혀주고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20세기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의 서거 20돐을 맞으며 그이와 김정일령도자를 변함없이 받들어모실 결심을 재표명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저희들로 하여금 아프리카나라들의 현안문제들을 잘 알수 있게 하고 아프리카인민들이 특별히 고심하는 문제들에 옳은 해답을 주는 방안들을 찾을수 있게 하는 사상적교과서로 되고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인민들의 보건 및 식량안전과 지역나라들의 자위적국방력을 보장하면서 과학과 기술을 정복할 결심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딸들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습니다.

각하에 의하여 모든 분야에서 강국건설이 진행되고있으며 그 투쟁은 련승할것입니다.

아프리카대륙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성스러운 위업인 조선반도의 통일을 위한 각하의 노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합니다.

김일성주석께 영원한 영광이 있으라!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아프리카의 자주적발전에 관한 지역인터네트토론회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양드레 로헤껠레 깔론다

2014년 7월 8일 킨샤사

사 설

반제반미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자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혁명적명절인 전승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승리자의 높은 영예와 함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책동은 더욱더 악랄해지고있다. 최근에도 미제는 남조선에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해적함선집단들을 끌어들여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군사훈련을 벌려놓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현실은 반제계급투쟁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급교양은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이다.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급교양을 중단없이 밀고나가야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적원칙과 사회주의의 본태를 끝까지 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비극적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계급교양을 소홀히 하거나 약화시키는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멸의 길이라는것이다. 사상진지, 계급진지가 허물어지면 혁명대오가 와해되고 경제문화진지에서도 물러서게 되며 나아가서는 피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게 된다는것이 력사와 현실이 새겨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계급교양사업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더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계급의식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혁명이 개척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우리 혁명대오안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착취와 억압에 대하여 말로만 듣고 총포탄이 작렬하는 전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주력을 이루고있다. 우리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립장에서 지난 시기보다 더욱 심도있게,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언제나 군인들속에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며 모든 군인들이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해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계신다.

우리가 높이 추켜든 선군의 기치는 가장 견결한 반제자주의 기치, 계급투쟁의 기치이며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순간도 놓을수 없는것이 바로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이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혁명에서는 계급교양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약화시키는 일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현시기 반제반미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을 보다 강도높이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체 인민이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줌도 안되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변변히 항거도 못해보고 무고한 죽음을 당한 신천땅의 쓰라린 교훈은 계급적원쑤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자그마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죄악의 력사와 날로 악랄해지는 반공화국책동에 대하여 똑똑히 알고 제국주의의 침략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적원쑤들과는 끝까지 싸워 무조건 결판을 내고야말겠다는 결사의 각오와 멸적의 의지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이 총포성없는 치렬한 계급투쟁이라는것과 우리가 살고있는 모든 곳에서 제국주의와의 보이지 않는 대결이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예리한 계급적관점에서 보고 대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과 로선을 생명선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과 로선은 이 땅우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전백승의 기치이며 전략적로선이다. 무적의 총대우에 평화도 있고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존엄과 번영도 있다.

우리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선군혁명사상과 로선의 철저한 체현자, 견결한 옹호관철자로, 열혈의 선군혁명투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야 한다. 누구나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며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틀어쥐고 자기 고향과 일터를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계급교양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의 투철한 대적관념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무비의 용감성과 멸적의 기상이 온 사회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반제반미계급교양에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청소년들은 조국과 혁명의 미래이며 계급투쟁의 대를 이어나가야 할 주인공들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청소년들을 주되는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사상정신을 흐리게 하고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계급교양사업을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청소년들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의 반동적본질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혁명의 전세대들이 어떤 피의 대가로 오늘의 행복을 마련하였는가를 청소년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어 그들이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바쳐 지키며 우리 혁명의 계급적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하기 싫어하고 투쟁하기 싫어하며 안일과 해이에 빠져 라태하게 생활하는 현상들이 우리의 새 세대들속에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반제반미계급교양을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계급투쟁의 진수를 깊이 인식시키고 계급적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세워주는데 기본을 두고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원리교양과 실물교양, 체험자들과의 상봉모임 등 여러가지 실효성있는 계급교양사업을 잘 배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해설담화와 강연, 웅변모임과 복수결의모임 같은것을 조직해도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불타는 증오심으로 심장의 피가 펄펄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여 반동적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우리 내부에 쉬를 쓸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신천박물관을 비롯한 계급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살림집지붕과 외벽타일붙이기공사 결속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살림집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며 문화봉사기지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건설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고있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자랑찬 위훈의 새 소식이 련이어 전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에 끝없이 고무된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으로 더 많은 공사량을 해제끼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18일까지 20여동에 달하는 모든 살림집들의 지붕과 외벽타일붙이기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각 시공단위들에서 살림집외부공사를 끝냄으로써 이곳 건설장에서는 그 어떤 큰비가 와도 내부공사에 총력량을 집중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지난 6월 19일 이곳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사장전역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놀라운 건설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의 공사과업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당면하여 살림집외부공사를 다그쳐 끝내는데 모를 박고 설계전투와 동시에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특히 색철판들과 색타일들을 살림집건설을 맡은 각 시공단위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해당단위와의 협동작전밑에 새로운 색갈의 타일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작전을 잘하였다.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이 단숨에의 기상을 힘차게 떨치며 위훈창조의 앞장에서 내달리였다.

3개 호동의 살림집건설을 맡은 강명환소속부대의 지휘관들은 산하부대들사이에 지붕철판씌우기와 외벽타일붙이기를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을 걸고 화선선동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도록 하였다. 엄명수소속부대를 비롯한 1호동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외벽타일붙이기공사에 대담하고 혁신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공격속도를 높임으로써 6월말까지 제일먼저 결속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김금철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였던 크나큰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5호동살림집 외벽타일붙이기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끝내였다.

홍정득소속부대, 강학철소속부대, 한성일소속부대의 군인들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질풍같이 내달려 맡은 살림집호동들의 지붕색철판씌우기와 외벽타일붙이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였다.

조선인민군 김웅철소속부대의 지휘관들은 덩지큰 3개 호동의 살림집건설을 맡은 조건에 맞게 구분대별공사과제를 명백히 주고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열백배로 분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이곳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희천의 근위부대 전투원들답게 한사람이 두몫, 세몫의 일감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6, 7, 8호동살림집 외벽타일붙이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조선인민내무군 진광철소속부대, 정창복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외부공사에서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하였다.

17, 18호동살림집을 맡은 진광철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틀어쥐고 색철판씌우기와 타일붙이기공사에 깨끗한 병사의 량심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정창복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색타일보장조건에 맞게 부대별, 구분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9, 14호동과 10호동살림집 외부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수도건설위원회, 대외건설지도국,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의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도 혁명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일터마다에서 새 기록, 새 기준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맡은 살림집호동들의 외부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모든 시공단위들의 일군들과 군인들, 건설자들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살림집외부공사를 끝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지금 살림집내부공사와 공공건물공사에 총력량을 집중하여 날에날마다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석탄생산량을 늘일 작전을 펼치고 일군들과 탄부들이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탄광들의 설비, 자재, 부속품확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탄차와 탄차바퀴, 부속품을 넉넉히 마련해주고있다. 이달에만도 련합기업소에서는 탄광들에 소철레루와 조구, 탄차베아링을 보장해주어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깊이 새기고 탄부들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막장마다에 총돌격전의 기상이 차넘치고 온 탄광에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제남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증산투쟁의 맨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중대별사회주의증산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감으로써 그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5갱, 6갱, 2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앞선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높여 매일 계획보다 많은 석탄을 생산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남양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데서 석탄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석탄생산의 앞장에 서서 하루계획을 1.3배로 넘쳐 수행해나가고있는 5갱, 2갱, 1갱의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면서 모든 갱들에서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도록 하고있다.

형봉탄광에서는 모든 갱, 중대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휘하며 석탄생산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탄광에서는 사회주의증산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서도 다음교대를 위해 막장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하는 등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이러한 속에 솔골갱, 중동갱, 대성갱들에서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서창청년탄광, 덕천탄광에서도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탄밭을 넉넉히 마련하면서도 채탄에 력량을 집중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당면한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지휘부들을 조직하고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농촌들에서 당면한 농작물비배관리를 짜고들면서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안악, 재령, 배천, 청단군과 해주시 등 벌지대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농작물이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해주시 영양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시의 농촌들에서는 논물관리공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것과 함께 농업근로자들이 논두렁보강과 수로정리, 용배수로가시기 등을 책임적으로 하여 고인물을 쭉쭉 뽑을수 있게 하고있다.

특히 은률군 장련, 철산협동농장과 연안군 봉덕, 송남협동농장에서는 뜨락또르후치와 부림소후치를 잘 배합함으로써 강냉이발후치질을 전부 끝냈다.

인민군군인들이 도의 농촌들에 나가 군민련합작전으로 가물과의 투쟁에 이어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있다.

도에서는 큰물로부터 관개구조물과 시설물, 물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미 관개구조물과 시설물, 물길의 안전상태에 대한 감시체계가 세워지고 일단 큰물위험이 조성되면 대책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갖추어졌다. 배수갑문과 배수문의 수리정비가 다그쳐지고 고인물빼기양수기들을 언제든지 가동시킬수 있는 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졌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도에서는 양수설비들의 가동에 필요한 전기와 연유보장대책도 예견성있게 세우고있다.

해안을 끼고있는 군들에서는 해안방조제에 위험개소가 없는가를 알아보고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혁명전사, 그 부름속에 빛나는 인생의 영광

조선인민군 군관이였던 윤성중동무가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

지난해 7월 전승 60돐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준공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영생의 언덕에 안치된 500여명의 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청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혁혁한 무훈의 주인공들이다. 그들가운데는 수류탄묶음을 안고 적땅크밑으로 뛰여든 영웅도 있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가슴으로 불뿜는 원쑤의 화구를 막은 영웅들도 있다. 치렬한 공중전에서 적기들을 격추한 비행사와 심한 부상으로 몸을 움직일수 없게 되자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 영웅도 번영하는 조국의 오늘을 지켜보는 영광의 자리에 있다.

매혹과 흠모

우리 시대가 낳은 어느 한 명곡에는 매혹은 흠모를 낳는 마를줄 모르는 샘물 흠모는 매혹이 터친 꺼질줄 모르는 불길이라는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다.

수난많던 이 땅에 열려진 격동의 영웅시대를 노래하고 평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영웅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형상적대답이 담겨있다고도 할수 있는 이 노래에 윤성중동무의 한생의 체험도 비껴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책동지가 뜻밖에도 서거하였을 때였다.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며 가장 중요한 일이 제기될 때마다 의례히 찾군 하시던 김책동지를 잃고 그토록 상실의 아픔이 크시였건만 그와 함께 일하던 전사들에 대하여서까지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날 윤성중동무를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가족들은 다 잘 있는가, 어디 아픈데는 없는가고 말씀을 시작하신 그이께서는 취사원동무가 그동안 수고많았다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김책동지사이에 오간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대하여 잘 알고있던 윤성중동무는 수령님께서 그처럼 믿고 내세워주시던 김책동지를 잃은 애석함을 안고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말씀올리였다.

《장군님, 저를 최전선구분대에 보내주십시오. 제 거기서 싸우는 전사들의 뒤바라지를 하겠습니다.》

군복을 입고 취사원을 하는것을 늘 부끄럽게 생각하며 김책동지에게 전투원으로 보내달라고 몇번씩이나 졸라왔었지만 이제는 고지에서 싸우는 전사들의 뒤바라지를 하는 취사원이 되겠다고 자진해나서는 그였다.

미더운 눈길을 보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제부터 나와 같이 있읍시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행복이였다. 순간 그는 어버이수령님께 무엇이라고 말씀올려야 할지 몰랐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한없는 고마움에 젖은 그의 마음을 대변하고있었다. 그 높은 믿음과 고결한 의리에 충정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자각이 온몸에 차넘치였다.

하지만 그때까지 다는 알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평범한 취사원에 불과한 자기를 위해 왜 그토록 마음쓰시는것인지.

어느날 윤성중동무는 한 일군으로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듣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김책동무가 보고싶어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김책동무가 데리고 일하던 취사원동무를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전달받고서야 그이께서 자기를 최고사령부에 불러주신 깊은 뜻을 알게 된 윤성중동무의 심중이 과연 어떠하였으랴.

하루에도 몇차례씩 수령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으면서도 그때마다 최대의 경모심을 안고 옷깃을 여미군 하던 김책동지, 수안보에서의 잊을수 없는 그밤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하여 한밤을 지새우며 교대없는 보초를 서던 김책동지,

길지 않은 나날에 목격하였던 하많은 사실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아, 그래서였구나.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동지들이 그 언제나 장군님만을 그리워하고 그이의 안녕을 지키고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가는 길에서 인생의 행복과 영광을 찾은것은…)

인생의 귀중한 진리를 새겨안는 윤성중동무의 귀전에 김책동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내 몫까지 합쳐 우리 장군님을 잘 모셔주시오.

언제나 존경하여오던 김책동지앞에 윤성중동무는 이렇게 결의다지였다.

《제 비록 취사원이지만 김책동지의 당부를 평생 심장에 새기고 장군님을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윤성중동무가 그 맹세를 지켜가던 나날은 김책동지가 늘 들려주군 하던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걸음걸음 체험해가는 나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과 꼭같이 잡곡밥을 드시며 조국해방전쟁을 이끄신 가슴뜨거운 사실에 대하여서는 오늘 우리 인민들 누구나 다 알고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단 한끼도 흰쌀밥을 들지 않으시였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윤성중동무와 일군들, 친위중대원들이 안타까와할 때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며 잡곡을 섞으면 오히려 밥맛이 더 좋다고,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에는 우리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군 하시였다. 고지에서 싸우는 전사들에게는 더운 밥과 따끈한 국을 먹여야 한다고 당부하시면서도 자신께서는 늘 잡곡밥에 나물채 몇가지로 식사를 하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주체42(1953)년 4월 어느날 점심때였다.

식당에서 검소한 식탁을 마주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을 보리밥먹는 날로 정하자고 하시였다. 지금까지 끼마다 잡곡밥을 드신 그이께서 또 토요일을 보리밥을 먹는 날로 정하자고 말씀하시니 모두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마주보기만 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펄쩍 뛴 사람은 윤성중동무였다. 어버이수령님께 변변치 못한 식사를 올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는 누구보다 속을 많이 태웠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오러 찾아왔던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군전투원들, 인민들은 물론 지어 외국인들까지도 그의 손을 부여잡고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부탁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였는데 언제 한번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늘 죄스러움이 컸던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식생활기준을 정하시니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에 눈물만 앞섰다.

주체41(1952)년 4월 15일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40돐이 되는 날이였다.

그전해의 생신날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만류로 끝내 생일상을 차려드리지 못한 일군들은 이번에만은 어떻게 하나 소박하게나마 성의를 다하려고 며칠전부터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구해온것이 닭 3마리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엄하게 나무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식량사정은 매우 긴장하여 인민들이 식량고통을 겪고있는데 우리가 생일을 차리면서 식량을 랑비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시며 절대로 생일상을 차리지 말아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결국 이해의 생신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잡곡밥에 나물채를 드시며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하시였다.

전쟁시기만이 아니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자신과 인민을 떼여놓고 생활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으시였다.

절세위인에 대한 끝없는 매혹은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 충정을 낳는 마를줄 모르는 샘이였다.

당시로서는 우리 인민이 다 알수 없었던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소박하고 평범한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는 남다른 행운속에서 성장하였기에 매혹과 흠모, 충정은 윤성중동무의 성격적특질로 되였다.

한생의 영광이 비낀 10년

수령과 전사사이에 맺어진 혈연적련계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정과 사랑이다.

윤성중동무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일해온 기간은 10년이다. 그 나날은 그의 한생의 영광을 대표할수 있으리만큼 가장 의의깊고 행복한 나날이였다.

윤성중동무는 생전에 자주 어버이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던 때의 일을 못 잊어하며 자식들에게 들려주군 하였다. 그날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선사령부가 위치한 수안보에까지 나오시였던 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포연탄우를 헤치시고 최전연에까지 오시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김책동지를 비롯한 지휘관들과 전사들은 크나큰 격정과 흠모의 마음으로 그이를 보좌해드리기 위하여 바삐 뛰여다니였다.

그러나 윤성중동무만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처럼 뵙고싶었던 어버이수령님께 자기 손으로 이 세상의 진수성찬을 정성껏 만들어올리고싶은데 음식감이 변변치 못하였던것이였다. 최전연이다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나지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신선한 오이로 랭국을 풀고 짬짬이 캐여다 장만해두었던 도라지와 고사리를 무쳐놓았다. 거기에 배낭속에 간수하였던 고추장 한종지를 놓은 식사를 어버이수령님께 차려드리였다. 그리고는 너무도 어설픈 식사를 올린것이 민망스럽고 죄스러워 취사장 한구석에 엉거주춤 서있기만 하였다.

그의 옹색한 마음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고한다고 다정히 말씀하시며 전선에 나와서 동무들이 성의를 다해 만든 음식을 대하고보니 감개무량하다고, 시원한 오이랭국까지 있으니 대단하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고 한들 전선에서 싸우는 동무들이 만든 음식맛에 비기겠는가고 하시며 스스럼없이 음식그릇에 수저를 가져가시였다.

《고사리와 도라지가 어데서 났습니까?》

《장군님, 취사원동무가 짬짬이 마련하여 말려두었던것입니다.》

윤성중동무를 대신하여 김책동지가 말씀드리였다.

취사원동무의 성의가 대단하다고 하시며 못내 감동깊은 표정을 지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을 이으시였다.

《전선에 나와서 도라지, 고사리찬을 대하고보니 우리가 그전에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유격대작식대원들은 전투의 여가에나 행군의 쉴참에 도라지와 고사리를 보면 캐고 뜯어다가 삶아 말리워가지고 다니면서 작식을 하였습니다. 취사원동무가 최전선에서 자체로 부식물을 마련하여 전투원들의 식사를 보장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순간 윤성중동무의 가슴은 세차게 울렁이였다. 취사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의 별치 않은 수고를 항일유격대작식대원들의 투쟁기풍으로 높이 평가해주시니 세상에 이런 믿음이 또 어데 있겠는가.

《흑—》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내렸다. 불쑥 해방전의 피눈물나던 일들이 어제런듯 되새겨졌다.

철들기 전부터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한 그는 징용에 끌려나가 열발가락이 다 물크러지도록 심한 동상까지 입게 되였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바에는 차라리 고향땅에 묻히자는 강심을 품고 죽음의 소굴에서 도망쳐나왔지만 마음놓고 밥조차 빌어먹을수 없었다. 겨우 발붙였다는 곳이 어느 국수집이였다. 이렇게 시작된 부엌데기생활은 그야말로 노예살이였다. 국수그릇에 파리가 잠시 앉았다 날아가기만 해도 《너 같은 거렁뱅이배때기에나 처넣으라.》고 국수벼락이 들씌워지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남은 음식을 몰래 입에 넣다가 들켜 죽도록 매를 맞기도 하였다.

모든 천대와 멸시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윤성중동무의 운명에 이와 같은 날이 있으리라고 언제 상상이나 해보았겠는가.

뿌잇하게 흐려진 눈길을 들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윤성중동무를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취사원의 임무가 중요합니다, 전선의 동무들이 몇밤을 새워도 힘든줄 모르고 용기백배해 싸우는것은 그들의 식사를 잘 보장하기 위하여 애쓰고있는 취사원의 숨은 노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사원의 임무는 총을 잡고 직접 적과 싸우는 전투원들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언제 한번 취사원의 일을 두고 이렇듯 영예롭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던 윤성중동무였다. 더우기 남들은 총을 들고 적들과 싸우며 공을 세우는데 자기는 언제나 앞치마를 두른 취사원을 하는것을 늘 부끄럽게 여기며 사랑하는 안해에게 편지 한장 날리지 못하고있던 그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날의 말씀은 윤성중동무에게 어제날에는 몰랐던 취사원의 긍지와 희열을 가슴가득 채워주었다.

그날 윤성중동무는 드디여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 해방후에야 연필이란것을 손에 쥐여보고 글을 배운 그가 이날의 영광을 또박또박 적어서 안해에게 첫 편지를 보냈던것이다.

취사원동무가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애쓰는데 여기는 전선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산나물을 채취하겠다고 지내 멀리까지 가면 안된다고 하시며 그의 신변에 대하여서까지 마음쓰셨다는 대목에 와서 윤성중동무의 안해도 울고 어머니의 얼굴과 편지를 번갈아 쳐다보던 철모르는 자식들도 모두 울었다.

이때로부터 그가 취사원으로 일한 기간은 령도자와 전사간의 가장 뜨거운 혁명적사랑과 의리가 엮어진 나날이였다.

바쁜 시간을 내시여 취사장에 나오실적마다 몸소 일을 도와주기도 하시면서 그의 생활과 가족들의 안부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주시였고 그가 일을 더 잘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기도 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정전된 이듬해 봄에는 윤성중동무가 가족과 떨어져있는것까지 마음쓰시며 아이들도 보고싶겠는데 그래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새 집도 마련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색다른 음식이나 좋은 물건이 생겼을 때면 그의 가정에도 꼭같이 나누어주시였으며 추리밭에 추리가 익었을 때에는 잘 익은 추리를 몸소 따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주라고 이르기도 하시였다. 그리고 그의 안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산모와 애기의 건강을 념려하여 귀중한 보약들을 마련해주시였으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선물을 보내주시는 이 세상 다시 없을 사랑과 은정을 가득 안겨주시였다.

수령과 취사원,

동서고금 그 어디에 령도자와 평범한 취사원사이에 이렇듯 뜨겁고도 진한 사랑과 정이 흐른적 있었던가.

한번 정을 주시면 지휘관이든 취사원이든 그가 누구이든 혁명의 한길에서 사상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로, 전우로 여기시며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거듭거듭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

우주의 행성들이 변함없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있음은 태양의 거대한 구심력때문이 아니겠는가.

윤성중동무와 같은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따르며 그이를 받들어 물과 불속에도 뛰여들며 전쟁사에 다시 없을 결사옹위의 영웅적화폭을 펼친 밑바탕에는 바로 혁명전사들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하기에 윤성중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한식솔이 되여 누려온 삶의 10년을 가장 아름답게 추억하며 한생토록 그이께 충직하였다.

위대한 사랑에 고결한 의리가 따른다

윤성중동무는 평범한 사람이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 대개가 그러하였던것처럼 무지와 몽매의 암흑세계속에서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야 했던 인간이였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참다운 삶의 좌표를 찾고 가렬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행운을 지니는 과정에 윤성중동무에게는 남다른 성격적특질이 형성되였으니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티 한점 없이 순결한 충실성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은 윤성중동무에게 있어서 기쁨과 행복의 전부였다.

윤성중동무는 《염소》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독한 줄담배군이였다. 그런 그가 하루에 두갑도 그만 세갑도 그만이던 담배를 뚝 끊었다. 주방의 위생을 보장하는데 자그마한 지장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하니 끊어서 나쁠것은 없겠지만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불쑥 끊어도 되겠는가, 담배란 끊기가 조련치 않은데 피우고싶은것을 참자니 오죽 고통스럽겠는가고 몹시 걱정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윤성중동무는 큼직한 곽을 하나 받게 되였다. 그안에는 고급담배가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담배는 기호품인데 왜 생각이 나지 않겠는가, 이것을 건사해두고 정 피우고싶을 때 한대씩 피우라고 하시였다는것이였다.

윤성중동무는 목이 꽉 메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자기가 담배를 끊은것을 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렇게도 마음쓰실줄 정말 몰랐던것이다.

그후에도 윤성중동무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정을 가슴에 안고 오직 혁명임무에 충실하였다.

윤성중동무가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던 이야기가 있다.

전쟁이 더욱 가렬해지던 어느날 미제공중비적들의 폭격이 있었다. 여기저기 폭탄이 날아와 터지는 속에서도 윤성중동무에게 빗개치듯 떠오르는것은 따로 보관해둔 고추장단지였다.

대피호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반대로 뛰여가는 윤성중동무를 보고 소리쳤지만 그에게는 들려오지 않았다. 찾아낸 단지를 안고 달리던 그는 폭격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소중한 고추장단지를 더욱 품어안은 그였지만 세찬 충격에 단지는 깨지고말았다.

사실 그 고추장단지로 말하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추억이 짙게 어려있는 단지였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기에 그는 여러곳에 입은 상처의 아픔보다 고추장단지가 못쓰게 된것이 너무도 분하였다. 땅우에 흩어진 단지쪼각들과 범벅이 된 고추장, 그것을 손으로 그러모으는 윤성중동무에게서는 사나이울음이 터져나왔다.

윤성중동무가 응급처치를 받고있는 곳으로 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추장단지가 무엇이길래 목숨과 바꾸려 하였는가고 나무람하시면서 나는 김책동무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동무를 잘 아는데 책임성이 높은 동무이라고, 고지식하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였다면 고추장단지때문에 이런 모험은 하지 않았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고지식하고 일밖에 모르는 책임성높은 사람,

이것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시는 윤성중동무였다. 고추장단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것이라 해도 어버이수령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과 서슴없이 바꾸였을것이며 적의 화구가 앞에 있다 해도 주저없이 몸으로 막았을 윤성중동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윤성중동무를 위해 자주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여러가지 료리방법도 가르쳐주시였고 그의 지성이 어린 소박한 음식도 달게 드시며 아주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군 하시였다.

계속되는 전쟁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 어려움과 곤난을 주었다. 최고사령부에도 후방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였다. 하여 시장이나 주변마을에서 쌀과 고기같은것을 구해오고 강에 나가 물고기와 가막조개도 잡아오군 하였다.

그때마다 윤성중동무는 자신이 직접 그 안전성에 대하여 열번, 스무번을 거듭 검사해보고서야 마음을 놓군 하였다.

이런 순결한 마음이 담긴 음식을 드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세상의 행복을 다 독차지한듯 하여 훨훨 날아갈것만 같은것이 취사원의 심정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중하를 걸머지시고 쌓이고쌓인 일감들을 처리하시느라 언제 한번 제시간에 따끈한 식사를 드신적이 없으시였다.

윤성중동무는 늘 이것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며 분발해나서군 하였다.

전선에서 후방으로, 후방에서 전선으로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이어가실 때에도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페도 끼치지 않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윤성중동무는 온갖 성의를 다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식사를 보장해드리였다. 식사시간도 잊고 사업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매일이다싶이 뜬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면서 자신을 깡그리 바치였다.

전승의 환호성이 터져오른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왔다.

윤성중동무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일해온 나날은 길지 않았지만 수령님을 받드는 길에서 전사의 본분과 의리를 다한 그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 뜨거운 추억은 흘러가는 세월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시였다. 전후시기 자신께서 입으셔야 할 외투를 윤성중동무의 딸에게 안겨주시던 그 사랑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자녀들모두를 훌륭히 키워주시였다. 그들이 해놓은 자그마한 일에 대하여서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사랑과 은정만을 베풀어주신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윤성중동무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믿음은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윤성중동무가 발휘한 충실성의 모범을 특출한 영웅적소행으로 보시고 그의 공적을 그토록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에 떠받들려 오늘도 윤성중동무는 공화국영웅들과 어깨나란히 영광의 언덕에서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있다.

수령결사옹위는 초소와 직무로 하는것이 아니다.

그가 한개 전선을 맡아 지휘한 사령관이였다 해도, 평범한 취사원이였다 해도 다같이 평범한 전사가 되여 목숨으로 수령을 결사옹위한 인간들이 우리 선렬들이였으며 이 위대한 전통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그토록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다.

윤성중동무의 한생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말해주고있다.

절세의 위인의 사랑과 은덕에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보답하는 길에 혁명전사의 존재가치가 있고 값높은 인생의 영광이 있다!

금별메달은 번쩍이지 않아도 우리 당이 취사원이였던 윤성중동무를 영생의 언덕에 세워준것은 그가 이 인생의 진리, 혁명의 진리를 한생을 바쳐 빛내였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외진 섬에서 등대원으로 일하여도 최고사령부로 가는 길을 밝혀준다고 생각하고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일하여도 캐내는 한줌한줌의 석탄이 부강조국에 빛과 열을 보태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 당은 혁명전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슬하에서 혁명을 하며 충정을 바치는것을 신념과 량심, 의리로 여겨온 윤성중동무를 비롯한 전세대들의 한생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노도치는 우리 혁명대오에 무한한 활력을 주는 귀중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백영미

‖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

《사상분야에서의 타협과 양보는 변질과 패배를 의미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사상분야에서의 사소한 타협이나 한걸음의 양보로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이 흘러들면 사회주의사상자체가 변질되고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이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원래 사상은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혁명적당은 사상을 무기로 하여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한다. 혁명하는 당은 사상사업에서 사소한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말아야 하며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사상분야에서의 타협과 양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이것은 지난날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이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당의 사상적전일성을 부인하고 당안에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마구 끌어들임으로써 당의 사상적기초를 허물어버렸다. 이들은 사상교양사업을 소홀히 하였을뿐아니라 당안에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고 부르죠아사상의 침습에 문을 열어놓았다. 고인물에 온갖 잡균이 성하듯이 사상교양과 투쟁이 없는 무풍지대가 조성된것으로 하여 당안에 각양각색의 주의주장이 대두하게 되고 부르죠아사상이 범람하게 되였으며 당이 사상적으로 와해변질되여 혁명적인것과 반혁명적인것을 갈라볼수 없게 되였다. 력사적경험은 사상이 변질될 때 당도 사회주의제도도 변질되게 되고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되며 피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상분야에서의 타협과 양보는 사상의 변질을 가져오고 사상의 변질은 당의 변질을 가져오며 당의 변질은 혁명과 건설의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는것, 바로 이것이 력사가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우리 당이 수십성상 자기의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올수 있은것은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며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해왔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거세하고 《비사상화》, 《비정치화》를 부르짖을 때에도 우리 당은 전당의 사상의지적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였다.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드팀없는 혁명적원칙성으로 하여 우리 당은 주체형의 혁명적당,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자랑떨칠수 있게 되였다.

우월한 사상이 있다고 하여 낡은 사상이 저절로 자리를 내놓는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릴 때 사회주의화원에 자본주의독초가 자라날수 없게 된다. 혁명적당은 사상분야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분야에서의 타협과 양보는 변질과 패배를 의미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에 담겨진 숭고한 뜻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자신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다.

윤철희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영웅전사들의 넋은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하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그 정신으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간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조선의 본때로

평안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희천6호발전소건설장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5월말까지 좌안가물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평안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난 6월 한달사이에 8천수백㎥의 콩크리트치기를 하여 계단식발전소건설장적으로 두번째로 언제 전구간에서의 기초 및 보강판콩크리트치기를 결속하였다.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그 정신으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불같은 열의안고 7월전투에 진입한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좌안쪽의 7개의 수문기둥콩크리트치기를 립체적으로 힘있게 벌려 지난 11일현재 월 콩크리트타입계획을 13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28년전 몸소 잡아주신 자리에 위치하고있는 6호발전소건설장은 강폭이 좁은 반면에 물이 깊고 물살도 세다. 이런 조건에 맞게 려단지휘부에서는 장마철전으로 좌안가물막이를 끝내고 좌안 6개구간의 언제공사를 최대한 다그치는것을 올해전투목표수행의 돌파구로 정하였다.

불과 석달 남짓한 기간에 그 방대한 공사를 해제낄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현장지휘부 일부 일군들은 일판을 크게 벌리지 말고 현재 진행중인 우안쪽공사에 력량을 집중할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이곳 6호발전소건설장에서 올해전투목표수행의 개가를 높이 울릴 충정의 각오로 만장약된 로력영웅인 려단정치부장 강영훈동무와 전체 돌격대원들의 대답은 하나와 같았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자!

이렇게 려단은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고 좌안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좌안가물막이공사의 실적은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있었다. 운수분대장 조법, 운전사들인 김철룡, 백영진, 최명국, 차인호, 최금철동무들이 경적소리 높이 달리고 또 달리였다. 려단일군들이 예견성있게 마련한 무게가 수t이나 되는 콩크리트부재들을 통쾌하게 쏟아부으며 뚝의 기초를 형성하고 그우에 막돌과 혼석을 다져나갔다.

하지만 돌격대원들의 의지를 시험하듯 강물은 때없이 불고 줄며 3차례에 걸쳐 그들의 피땀이 스민 1만 8천㎥의 혼석을 가뭇없이 씻어버리였다. 자연의 횡포한 도전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을 더욱 분발시켰다. 하루에 100회이상을 초과하며 혼석장과 가물막이전투장을 오가는 운전사들의 눈은 겹쌓이는 피로로 충혈되였다. 장철성, 리철남동무를 비롯한 려단의 지휘성원들이 스스로 밤이면 그들의 교대운전사가 되였다. 자기들이 한m한m 늘여가는 가물막이뚝이 올해전투승리의 그날과 잇닿아있다는 자각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결사의 투쟁은 드디여 5월말에 이르러 좌안가물막이공사의 결속에로 이어졌다.

좌안가물막이공사와 동시에 려단에서는 설비제작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졌다. 려단지휘관인 리상건동무가 창조적사색으로 실정에 맞는 선별계통설계를 완성하였다. 박천군대대 대대장 박두필동무와 김형주, 김성남, 리윤철동무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용접의 불꽃을 날리며 선별장, 혼합장설비를 완성해나갈 때 철산군대대의 전민철, 허성철동무들도 창조적열정을 다 바치며 권양기를 제작해나갔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능률높은 선별장, 혼합장설비들이 한달 남짓한 기간에 태여났으며 좌안쪽콩크리트치기의 질과 속도를 높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였다.

스스로 택한 어려운 전투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결사전은 좌안언제기초 및 보강판콩크리트치기전투를 계기로 더욱 치렬해졌다.

현장지휘부 설계분과의 김정철동무와 려단참모장 리후근동무가 창조적지혜를 합쳐 기본구간에 대한 새로운 가물막이방법을 창안하고 련이어 1500㎥의 암반굴착량을 줄일수 있는 방도도 찾아내였다. 종합혼합장에서 질좋은 혼합물을 받아실은 자동차들이 타입장한복판까지 들어와 혼합물을 부리우면 굴착기운전공인 주현철동무가 그것을 쭉쭉 밀어내며 고루 펴나갔다. 진동다짐기를 틀어잡은 돌격대원들이 그에 뒤질세라, 한점의 기포도 있을세라 깐진 일본새를 발휘하는 속에 하루에 최고 500㎥이상에 달하는 타입실적이 기록되였다. 치렬한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드디여 6월 25일까지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좌안 6개 구간의 언제기초 및 보강판콩크리트치기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고야말았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하루하루를 보통날의 열백날로 여기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한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에 의하여 올해전투계획수행을 위한 결정적돌파구가 마련되였다.

정신력발동은 비약의 열쇠

특색있는 시랑송모임

지난 6월초 청천강전역의 공사장에서는 년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새겨진 서정시 《어머니》가 일제히 울려퍼지기 시작하였다.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는 방송선전차에서는 물론 돌격대원들이 일하는 곳 어데서나 시 《어머니》의 구절구절이 울려퍼졌다. 쉴참에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대대별, 중대별, 소대별로 저저마다 격정을 안고 시를 랑송하였다.

이렇듯 고조된 분위기속에 뜻깊은 6월 19일에 현장지휘부와 각 려단들에서 시랑송모임들이 특색있게 진행되였다. 그 형식과 방법들은 서로 달랐지만 그날에 높이 울려퍼진 시 《어머니》는 청천강용사들모두에게 조선속도창조투쟁의 전렬에 내세워준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산판에서의 보여주기사업

지난 6월 29일 통나무생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백산지구의 산판에서는 각 단위 지휘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류다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천막이나 비닐박막으로 간편하게 꾸려진 숙소들의 입구에 혁명적인 구호와 전투적인 글발들이 있었다. 숙소내부를 인민군대식으로 잘 꾸려놓은 태천,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들, 철도성, 평안북도, 함경남도, 건설건재공업성려단들이며 개울가에 수차식소형발전기를 설치한 평안남도려단, 평양시려단의 야외식당과 덕수터, 남포시려단의 알른알른한 화식기재들과 알뜰한 샘물터 등은 그대로 항일유격대식생활기풍이 철저히 확립된 이곳 전투장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청천강전역의 모든 건설장들과 숙소마다에서는 항일유격대식생활기풍, 혁명군대의 생활기풍을 보다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이 드세차게 불었다.

얼음과자운반차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공사장마다에 때없이 지휘용승용차들이 와닿고 큰 보온통들이 부리워진다. 통마다 그득히 담긴 연분홍색의 얼음과자들을 서로서로 받아쥐고 돌격대원들은 기뻐한다. …

그 얼음과자들은 바로 현장지휘부에 새로 건설한 능력이 큰 랭동고에서 생산한것이다. 지난 4일 자체로 생산한 첫 얼음과자가 8호발전소건설장으로 운반되였으며 련이어 4호와 9호, 5호와 3호, 6호, 10호와 11호, 12호발전소건설장으로 수송되고있다. 비록 크지 않은 얼음과자이지만 이것을 위해 바친 현장지휘부 정치일군들의 진정은 전체 돌격대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당정책옹위전의 한전호에서 마음도 뜻도 실천도 함께 하며 청천강용사들은 오늘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현지보도

줄기차게 뻗어가는 대통로

자강도려단 물길굴공사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펼쳐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건설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위용과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야 합니다.》

여기는 치렬한 건설전투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희천3호발전소 물길굴공사장이다.

지금 이곳 지하막장에서는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자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상부 및 하부확장공사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려단장 김선남동무의 지휘에 따라 대형화물자동차가 엄청나게 큰 굴입구를 통해 직접 지하막장으로 기세좋게 진입한다.

대형화물자동차가 멎어서기 바쁘게 버럭처리를 맡은 랑림군대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상차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친다. 일 잘하기로 소문난 우시군대대의 전투원들이 련속 광차를 들이대며 버럭운반을 확고히 앞세우고있다. 잠간사이에 버럭을 만적재한 대형화물자동차가 물길굴밖으로 빠져나가기 바쁘게 또 다른 차가 작업장에 들어선다.

뚜룩, 뚜루룩, 뚜루룩…

맞은켠에서 제대군인들인 1대대의 김정남, 정혁동무들이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물길굴옆벽의 암반을 향해 드센 공격을 들이댄다. 이들의 머리우에서 번뜩이는 안전모의 전등불빛이 목표를 틀어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앞계선에서 상부확장공사를 맡은 3대대의 착암공 최철범, 리광진, 전금혁동무들도 돌격선에 나선 화선병사의 자세로 암벽에 련속 발파구멍을 내고있다. 정머리가 깊숙이 뚫고 들어갈수록 돌가루가 부슬부슬 흘러내린다. 순식간에 끄떡없을것만 같던 천연암반이 온통 벌둥지처럼 되고만다.

어느새 발파공들이 손에 익은 능숙한 솜씨로 장약을 민첩하게 해나간다.

잠시후 쿵, 쿠쿵, 쿵쿵… 하고 울리는 여무진 발파소리, 물길굴안이 들썩인다. 암벽이 통채로 무너져내리고 막장은 또다시 한발이나 전진한다.

《지금 우리 려단 돌격대원들의 열의는 대단합니다. 우리들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서라도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결정적고리인 물길굴공사를 기어이 제기일에 끝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 완공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이곳 정치부장 안춘범동무가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안고 신심에 넘쳐 말한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순간도 잊지 않고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자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비약의 대통로가 줄기차게 뻗어나간다.

발전기실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어

평안남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희천8호발전소의 발전기실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어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실정에 맞게 전반적인 공사수행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는 발전기실건설에 화력을 집중하고 대중의 열의를 최대한으로 분출시키면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발전기실공사장가까이에 선별장과 세멘트창고를 손색없이 꾸려놓고 종전의 도로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자재운반과 굴착, 콩크리트치기를 드세게 내밀었다. 특히 착암기와 혼합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발전기실공사에 집중하고 빠른 시일안에 육중한 언제기중기를 성과적으로 운반 및 설치함으로써 건설속도를 계속 높여나갔다.

지금 평안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발전기실공사에서 통장훈을 부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남은 콩크리트치기와 언제건설에 계속 드센 박차를 가하면서 건설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희천4호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부단히 높이며 발전기실과 언제건설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곳 일군들은 각종 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고 그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타입직장과 골재직장, 건축직장, 운수작업반과 조립작업반, 청년돌격대의 건설자들이 설비리용을 실정에 맞게 짜고들어 공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하여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종전에 다른 단위에서 하던 설비조립과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제끼면서 발전기실건설과 언제공사를 다그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자강도려단과 평양시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발전기실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어 건설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평양시려단에서—

—평안남도려단에서—

—자강도려단에서—

건설장에 새겨진 애국의 자욱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산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할것을 결심한것은 지난 6월초였다.

전경범, 구충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공사장의 실태를 료해하던 과정에 감동적인 소식을 알게 되였다. 발전소건설자들이 월전투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날밤 12시가 되면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삼가 드리군 한다는 사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울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청천강용사들을 찾아가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자.)

일군들부터가 앞장에 서고 종업원들이 발동되여 많은 지원물자가 마련되는 속에 예술소품공연준비도 맹렬하게 벌어졌다. 동설용, 리향미, 황명환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 가슴벅찬 현실을 체험하게 될 그날을 그려보며 밤새워 작품선정과 기량훈련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바치였다. 이런 준비밑에 이들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자들이 6월계획을 완수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즉시 건설장으로 달려갔다.

6월 25일 희천9호발전소건설자들앞에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축하공연무대를 펼치였다. 설화와 합창 《희천에서 만나자》, 녀성독창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등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종목들로 일관된 공연무대는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겨 끝낼 불타는 열의로 가슴끓이게 하였다. 다음날 이들은 현장지휘부를 찾아가 공연을 진행하고 성심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도 넘겨주었다. 이어 희천3호, 11호발전소건설장들에 나가 경제선동활동을 벌림으로써 건설자들로 하여금 청천강용사들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당부와 기대를 더욱 가슴깊이 새기게 하였으며 그들을 새로운 위훈과 기적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선구자의 영예 떨치는 돌격대원들

—자강도려단에서—

—황해남도려단에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강화조치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최근 우리의 전략군집단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들은 초정밀화된 전술로케트발사와 각이한 사명의 포사격훈련을 포함하여 나라의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실전훈련을 련속 진행하고있다.

우리에 대한 불순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고립압살책동과 광기어린 침략전쟁소동이 더욱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때에 진행되고있는 인민군부대들의 실전훈련들과 그 과정에 이룩된 사변적인 쾌승들은 새로운 조선속도로 폭풍쳐 내달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고있다.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세상사람들도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 길에서 과시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눈부신 성과들에 부러움과 선망의 눈길을 보내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유독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박근혜일당을 비롯한 불순세력들만이 삐뚤어진 속내를 드러내며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미국은 정계와 군부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마치 우리의 전술로케트가 미국본토타격에 진입하기라도 한것처럼 《북조선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주고있다고 고아대고있으며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을 《정치적목적에 무게를 둔 저강도도발》로, 《지역동맹국들에 대한 련속적인 군사적위협》으로 매도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상전의 심보사나운 비방질에 장단을 맞추어 우리의 전술로케트발사와 포사격훈련을 《특별제안과 정부성명거부에 대한 반발》이고 《군사적긴장의 파고를 높이는 위험한 도발》이며 제놈들에 대한 《고의적인 위협》이라고 겨끔내기로 청을 돋구고있다.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한 타령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썩은 늪가에 몰켜있는 칠팔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유엔에 각서를 보낸다 어쩐다 하는 터무니없는 추태까지 드러내보였다.

지어 공정성을 잃은지 오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복잡소동을 벌리며 여론을 오도하여 확산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7월 16일에는 박근혜까지 괴뢰군부깡패두목들을 청와대 안방에 불러다놓고 우리가 《한치의 앞도 예측할수 없는 도발행보》로 긴장수위를 계속 높이고있다고 함부로 걸고들면서 감히 그 누구에게 《그 대가가 엄청나다는것을 인식시킬것》이라고 희떱게 줴쳐대기도 하였다.

이런 해괴한 광대놀음에 일부 주대없는 나라들도 맹종하여 미국의 구린내나는 꽁무니를 따르면서 저저마다 가련한 처지에 이른 박근혜를 껴안아보려고 부질없이 왼심을 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흑백을 전도하며 벌리고있는 이 모든 얼빠진 소동과 관련하여 그 주모자들인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엄한 경종을 다시금 울리게 된다.

1.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도발》과 《위협》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나 똑바로 알고 주절대야 한다.

도발이란 못된 행동이나 범죄를 고의적으로 버르집어 일으키는 처사와 남을 무턱대고 걸고드는 악습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멋없이 허세를 부리며 함부로 상대를 겨누고 마음을 놓을수 없게 을러메고 공갈협박하는 행위를 두고 위협이라고 한다.

우리 전술로케트발사나 포사격을 비롯한 정상적인 군사훈련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땅에서 우리 군대가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정정당당한 군사행동이며 자위력강화를 위한 합법적인 자주권행사이다.

우리의 전술로케트발사가 미국에 대한 《도발》이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보다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단행해온 미국의 전략미싸일발사나 때없이 남의 나라 땅에 기여들어 남조선군부깡패들을 그러안고 우리를 반대하여 벌리는 침략전쟁연습들에 대하여서는 과연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는가.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도발과 위협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호전적인 군사전략에 따라 추진되고있는 모든 정치, 군사적준동들이다.

다시말하여 미국의 부추김밑에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매일같이 감행하고있는 우리측 령해에 대한 무모한 침범행위가 바로 전형적인 도발이다.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개섬지역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리는 광란적인 총포사격과 같은 선불질이 진짜도발이고 동족에 대한 진짜위협이다.

군사분계연선의 여기저기에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감행하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수도, 회피할수도 없는 악랄한 심리적도발이다.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박근혜가 여기저기 푼수없이 돌아치며 목에 피대를 세우고 헐뜯어대고있는것은 도발가운데서도 가장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다.

포악하기 이를데 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선에서 각종 핵전쟁살인장비들까지 끌어들여 벌리고있는 핵전쟁연습은 극도로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이고 가장 로골적인 위협과 공갈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비록 때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짜도발과 위협을 저지르고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자신들이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주절대지 말아야 한다.

2.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도적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식의 파렴치한 날강도적행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불순한짓을 저지르고도 몽둥이를 들고 뻐젓이 행길에 나서는것이 도적의 행태이다.

도적이야 하고 남먼저 큰소리치는것도 도적의 본성이다.

도적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뻔뻔스럽고 철면피한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도적을 날강도라고 하였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노는 꼴이 꼭 날강도적인 도적의 본새 그대로이다.

원래 미국의 대내외정책과 전략의 목표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도적인 지배와 간섭이고 침략과 략탈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역시 여기에 뿌리를 두고있다.

그래서 세기를 두고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쓰고있는것이며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데 피눈이 되여 달라붙고있는것이다.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앞장세워 남조선에 살인핵장비를 끌어들이는것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발단시킨것도 미국이고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위협과 공갈을 멈추지 않고있는것도 미국이다.

지금 이 시각도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 타격단을 비롯한 미국의 해적집단들이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우리를 목표로 삼고 돌아치고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북핵폐기》를 앞장에서 제창해대고있다.

이런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지게 된 우리의 핵억제력과 로케트무력, 자기의 령토, 령해, 령공에서 진행하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며 혀바닥이 돌아가는대로 마구 걸고들고있는것이다.

아무리 불공평하고 불의가 판을 친다 해도 이와 같은 날강도적인 행위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것이다.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날강도 미국의 억지주장도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지만 여기에 무턱대고 왜가리청을 합치고 비굴하게 아양을 떠는 박근혜일당의 처사는 더더욱 꼴불견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남의 나라 땅과 바다와 하늘에 기여들어 침략과 전쟁연습을 매일같이 강도높게 벌리고있는 도발과 위협의 원흉인 미국과 그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에 제정신이 없는 남조선당국이 제 땅, 제 바다, 제 하늘에서 진행하는 우리의 자위적군사훈련까지 《도발》과 《위협》으로 몰아대는 그 파렴치한 날강도적행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해야 적중하겠는가.

그야말로 제 손으로 제 집을 지키려는 주인에게 다짜고짜 행패를 부리는 날강도의 뻔뻔스러운 처사일뿐이다.

이런 날강도적행위가 다른 곳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켜서있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백년천년세월이 흘러도 이 땅에서는 미국의 강박과 유혹에 넘어가 《뿔구부린 양》이 되여 민족의 존엄이 유린당하고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한 아프리카나 유럽나라들의 비참상이 절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날강도적인 적대행위에 매달릴수록 청천벽력과 같은 우리 식의 거센 보복대응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도발》과 《위협》설을 내돌리며 우리에 대한 고립과 봉쇄에 악을 쓰면 쓸수록 그를 일격에 풍지박산내기 위해 이미 세워진 우리 식의 완벽한 정책과 전략에 따라 상상할수 없는 여러가지 과감한 실천행동이 과시될것이다.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책동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그 모든것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백두산강군의 혁명전쟁방식과 그에 따른 기상천외한 보복대응이 실행될것이다.

작용과 반작용은 어길수 없는 물리적법칙이다.

이 법칙은 정치와 군사를 포함한 모든 사회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공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는 핵억제력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이 되였다.

더우기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점에서 선택한 임의의 목표를 골라가며 소멸할수 있는 초정밀화된 로케트들의 타격능력도 빈틈없이 갖추게 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날강도적인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우리 식의 거센 보복대응이 뒤따르게 된다는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보통강반에 정박해있는 미국의 가련한 《푸에블로》호 무장간첩선과 정의의 불벼락에 아직도 꺼멓게 그슬린 흔적이 력력한 연평도가 생생한 증견대상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자비하게 맞받아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통적인 백두산식대응방식은 불변이다.

우리는 이미 1월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통하여 그리고 6월의 특별제안과 7월의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이제 남은것은 최후의 선택뿐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더이상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함부로 입에 올리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수록 우리의 자위적인 모든 억제력은 이 세상의 온갖 불순세력들을 징벌할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 천하무적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게 될것이며 실제적인 정의의 보복행동으로 거세게 대응해나가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7월 20일
평 양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0일 알레싼드로 루치니 정치부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 이딸리아 어지역공산당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체로 새 다리를 건설

신계군에서

신계군소재지에 있는 신계천에 새 다리가 건설되였다.

읍지구와 장림, 월천지구를 련결해주는 새 다리가 건설됨으로써 인민들의 교통상편의와 학생들의 통학조건을 보다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책임일군들은 신계천에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는 콩크리트다리를 건설할 목표를 내세웠다. 그리고 다리건설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근 100m나 되는 다리를 군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일떠세운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많은 로력과 세멘트, 강재가 드는 어렵고 방대한 건설공사였다.

하지만 군의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좋은 일을 한다는 긍지에 넘쳐 공사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한 군에서는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다리설계를 완성하고 건설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었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공사에 동원된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맡은 공사과제를 다그쳐 끝내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고 건설현장에 자주 나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면서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다리기둥기초굴착을 짧은 기간에 해제낀 건설자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보조림과 상판치기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내밀었다.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다리건설은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였다.

군상업관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읍사무소의 일군들과 가두인민반원들이 다리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현대적미감이 나게 훌륭히 건설된 다리는 주민들의 교통상편의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한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취주악 및 대렬합창경연

【평양 7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한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취주악 및 대렬합창경연이 20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선군으로 존엄높은 내 조국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갈 혁명의 계승자들의 드높은 열의가 차넘치는 속에 모란봉구역의 학생소년들이 주악하는 《7.27행진곡》이 울려퍼졌다.

이어 중구역, 락랑구역, 서성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선교구역, 대성구역, 평천구역의 학생소년들이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단숨에》,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등의 노래들을 주악하였다.

출연자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세기에 빛날 전승업적을 취주악선률에 담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판가리결전의 그날이 오면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넋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하며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갈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었다.

이어 대렬합창경연이 진행되였다.

각 구역의 청소년학생들은 《조국보위의 노래》, 《소년빨찌산의 노래》 등을 힘차게 부르며 전승의 노래 울려퍼지던 열병광장을 씩씩하게 행진해갔다.

성스러운 조국보위의 한길에서 선군시대의 리수복, 강호영이 될 열혈청춘들의 불타는 맹세와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광장에 《해안포병의 노래》, 《진군 또 진군》을 비롯한 전시가요들이 울려퍼졌다.

참가자들은 《발걸음》,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등의 노래들을 우렁차게 합창하면서 보무당당히 광장을 누벼나갔다.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취주악 및 대렬합창경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떨쳐갈 수도청년전위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동해지구에 일떠선 현대적인 물고기가공기지

조업을 앞둔 갈마식료공장을 돌아보고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인민의 행복을 위한 훌륭한 창조물들이 도처에 련이어 일떠서고있는 속에 동해지구에 현대적인 물고기가공기지가 새로 건설되여 조업을 눈앞에 두고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갈마식료공장이 조업되면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란젓과 창난젓, 말린 명태와 말린 낙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좋은 수산물가공품이 쏟아져나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갈마식료공장,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가슴은 절로 후더워진다.

몸소 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명칭을 **《갈마식료공장》**으로 부르도록 해주시였으며 명당자리에 공장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인민에게 남부럽지 않은 윤택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절승을 자랑하는 동해지구에 현대적인 물고기가공기지를 일떠세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참으로 갈마식료공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마다에 새긴 강원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당의 사랑과 은정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가닿게 할 불타는 일념안고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꽃튀는 전투의 날과 날을 이어왔다.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건설자들은 언땅을 까내며 기초굴착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고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높이 새로운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며 건설속도를 부쩍 높였다.

공장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고결한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에 의해 불과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물고기가공기지가 자태를 드러내며 번듯하게 건설되였다.

그러나 공장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그 심원한 세계와 깊이를 다는 알수 없었다.

지난 6월말, 그날은 찌는듯한 무더위로 공장구내가 확확 달아있었다.

바로 그날 전선시찰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갈마식료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지령실과 가공실, 랭동실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물고기가공기지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릴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내외부를 손색없이 꾸리며 가공실들의 배수 및 통풍체계를 잘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조업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귀기울이면 금시라도 들려오는듯싶다.

조업후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면 로동자들의 책임성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당에서 마련해준 현대적인 랭동 및 가공설비들이 큰 은이 나게 하여야 한다고, 공장에서는 앞으로 그 어디에서도 흉내낼수 없는 명상표, 명제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공장에서는 맛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다른 나라 수산물가공품들을 압도하여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을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팡팡 쏟아져나와야 한다고, 그러자면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 어디에서도 흉내낼수 없는 명상표, 명제품을!

진정 이 한마디의 말씀속에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시고도 웅심깊은 사랑이 응축되여있는것 아닌가.

지금 갈마식료공장은 조업준비로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이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가닿게 할 불같은 일념안고 인민군군인들과 강원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들이대며 전투현장마다에서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공장안은 궁전처럼, 공장밖은 공원같이 꾸려지고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공장조업과 함께 맛좋은 수산물가공품들을 팡팡 생산할수 있게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있다. 과학연구기관들의 연구사들이 이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나섰다.

조업을 눈앞에 둔 갈마식료공장, 동해지구에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물고기가공기지는 머지않아 생산의 동음을 울리며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후세에 길이 전해갈것이다.

특파기자 신 천 일

대홍단벌에 감자꽃바다 펼쳐졌다

대홍단벌에 감자꽃 피는 계절이 왔다.

농장벌을 메울듯 앞을 다투어 피여나는 감자꽃, 푸른 하늘아래 끝간데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감자꽃바다는 볼수록 장관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대홍단군에 불멸의 령도의 첫 자욱을 남기신 60돐이 되는 뜻깊은 해,

이해의 감자꽃바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속에 펼쳐졌다고 대홍단군 농업근로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누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받아안고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아 내 조국의 창창한 래일, 대홍단의 더욱 찬란할 래일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던 그 밤을 잊지 못해한다. 또 누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량강땅에 보내주신 모란봉악단의 공연으로 온 대홍단벌이 들썩하던 그날을 평생토록 잊지 못하겠다고 한다.

조국진군의 길에 나섰던 그날의 항일유격대녀대원들의 옷차림을 하고 무대에 나선 모란봉악단의 배우들, 그들이 노래 《대홍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와 《대홍단삼천리》를 불렀을 때 모두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며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이 땅에 세세년년 감자대풍을 안아오리라!

불타는 그 마음을 안고 이들은 대홍단벌에 성실한 땀을 묻었다. …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어려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끝없이 꽃펴나는 성스러운 땅, 이 땅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결심을 안고 대홍단군 농업근로자들은 농장벌에 진심을 바쳐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독자의 편지

친부모의 심정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영예군인인 저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우리 송원군의 일군들의 소행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몇해전 제가 제대되여 집으로 돌아온 때였습니다.

뜻밖에도 군책임일군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새로 나온 도서들과 보약재들, 식료품들을 안겨준 그들은 미리 찾아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건강상태는 어떠하며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를 알아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일군들은 사업이 바쁜 속에서도 국가적명절들에는 물론 자주 저의 집을 찾아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성심성의로 돌봐주었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어느 한 중앙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때에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면서 저의 등을 떠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을 받은 후에는 수백리길을 달려와 성의껏 마련한 보약도 안겨주었습니다.

새해의 첫날에도 우리 집을 찾은 군일군들은 저의 손을 잡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싶어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저의 건강상태며 생활형편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알아보는것이였습니다. 저와 마주한 그들은 신년사의 기본사상과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면서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는 보람찬 길에서 영원한 길동무가 되자고 고무해주었습니다.

정말이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군일군들의 소행을 대할 때마다 저는 친부모의 다심한 정을 뜨겁게 느끼며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군 합니다.

송원군 읍 93인민반 김철명

우리의 정당한 군사력강화조치는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평화와 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는 침략전쟁연습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8월은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강렬하게 분출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미제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해마다 8월이면 대규모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것으로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면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군 하였다. 올해에도 그 력사가 반복되고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 하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할 기도를 드러내놓고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상투적인 말장난질을 하고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으로써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이 해마다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극히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전쟁연습의 뿌리는 정전직후인 1954년부터 시작된 《포커스 렌즈》이다. 그것이 1976년부터 남조선단독으로 벌리던 《을지》종합군사연습과 통합되여 《을지 포커스 렌즈》연습으로 변신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명칭이 바뀌여지는것과 동시에 그 침략적성격이 더욱 강화되였다. 올해로 60년이 되는 이 전쟁연습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들가운데서 그 력사가 가장 오랜것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이 전쟁연습에는 해마다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과 해외로부터 파견되는 미증원부대, 남조선의 륙해공군은 물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려 40만~50여만명의 방대한 인원이 동원되군 하였다.

이것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로 감행되는 전쟁불장난인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내외호전광들은 지금껏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통해 우리의 전략적거점들에 대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부터의 중장거리정밀타격과 신속기동타격을 가상한 각종 훈련들을 실전의 분위기에서 벌려왔다. 몇년전부터는 감히 우리 수뇌부를 노린 특수전훈련과 《북의 핵과 미싸일을 제거》하는 훈련을 벌리고있다. 또한 이번에 감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는 올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마찬가지로 극히 도발적인 《맞춤형억제전략》에 따른 불장난소동도 벌어지게 된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얼마나 침략적이며 악랄한 군사적도발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파괴하고 북침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핵선제공격연습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재앙의 근원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침략적인 대아시아전략의 실현을 위한 군사적발판으로 계속 써먹으며 자기 침략무력을 무한정 주둔시키기 위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고있으며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그 수단으로 삼고있다.

조선반도의 항시적인 긴장격화를 추구하고있는 미국은 그와 상반되는 북남관계의 개선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감행해왔다. 지어 북남사이의 대화와 정세완화가 이루어지는 속에서도 북침전쟁불장난소동을 중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도발적으로 감행하였다. 미국이 올해 2월 북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관련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고있는 때에 조선서해의 직도상공에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투입하여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벌린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남조선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위협이며 적대감과 침략의사의 명백한 표시로서 그의 강행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게 된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려놓은 도발적인 전쟁연습으로 위기에 처하고 우여곡절을 겪은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어차피 긴장격화와 북남관계파국을 불러오기마련이다.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어긋나게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강행하려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내외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미국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다면 그로부터 초래되게 될 사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지금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있다.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가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애족적조치이다.

우리는 시종일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을 바라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온당치 못한 태도를 취하고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면서 그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북남실무회담을 결렬시킨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오늘의 사태는 남조선당국이 시대착오적인 적대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대결정책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의 정세하에서 북과 남은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불신과 대결의 낡은 관념을 털어버리고 북남관계에 도움을 주고 그것을 전진시키는 좋은 일을 해야지 그에 저해를 주는 반통일행위를 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사태의 엄중성을 바로 보고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

허 영 민

고의적인 생트집, 계획적인 도발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우리는 인민군부대들의 전술로케트발사와 포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한 전쟁연습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짙어가는 엄혹한 정세에 따른 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터무니없이 시비질하며 소란을 피우고있다. 며칠전 괴뢰들은 그 무슨 《결의위반》을 운운하며 유엔의 한 위원회에 우리의 미싸일발사문제를 다루어줄것을 청탁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편 괴뢰국방부 대변인이라는자는 《매우 큰 위협》이니 뭐니 하고 무슨 변이라도 난듯이 고아대면서 《북방한계선》이남으로 사격할 경우 《주저없이 보복》할것이라고 피대를 돋구었다. 지어 남조선집권자까지 나서서 《북이 도발》할 경우 《초전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응징》하라고 군부패거리들을 다그어댔다. 바로 이런것을 두고 도적이 매를 든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떠다니는 군사기지》, 《전쟁괴물》로 불리우는 미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타격집단이 투입된 가운데 미국과 괴뢰들의 북침련합해상훈련이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다. 22일부터는 일본《자위대》해군함선들의 참가하에 제주도근해에서 대규모적인 훈련이 벌어진다.

미제침략군의 핵타격무력의 중추를 이루는 핵항공모함은 물론 일본《자위대》무력까지 끌어들여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소동을 감행하는 등 저들이 할짓은 다하는자들이 어떻게 《도발》이니 뭐니 하며 우리에게 삿대질인가.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남조선괴뢰들의 망동이야말로 고의적인 생트집으로서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대결상태를 격화시키고 외세와의 공조로 반공화국압살흉계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행위이다.

얼마전 우리 공화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북남관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으로부터 출발하여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남조선당국이 그에 적극 응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니, 《진정성》이니 뭐니 하고 외면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찬물을 끼얹는것으로 대답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를 《도발》이라고 헐뜯으며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것은 그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야망을 한사코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핵전쟁의 대명사와도 같은 미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가 우리의 주변을 검질기게 맴돌며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대세력의 침략적도전을 무적의 힘으로 철저히 짓뭉개버릴 의지를 천백배로 굳세게 해주고있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로 되고 피로써 이어온 귀중한 력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는것은 비단 력사의 교훈만이 아니라 오늘의 준엄한 현실이다. 말로써는 결코 자기를 지킬수 없다.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이 평화도 수호할수 있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자위적국방력강화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이번에 최전연의 화력진지들에서 울린 명중포성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내외호전광들에 대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 보복일념의 폭발이다.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힘으로 압살하려고 미쳐날뛰는 내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대결소동을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으로 제압하고 민족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철옹성같이 지켜가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할수록 우리의 로케트발사와 핵무력강화노력은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쓸데없는 시비질에 정력을 쏟는 어리석은짓을 하지 말고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행동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심 철 영

남조선당국은 더이상 북남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재미동포언론이 주장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이 11일 글을 발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에 남조선당국이 성실히 호응해나설것을 주장하였다.

글은 북이 올해 들어와 여러차례에 걸치는 통일제안들을 통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때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핵무기로 북침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추진하고있어 해내외동포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고 밝혔다.

더우기 미국은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와 이지스구축함 《키드》호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지금껏 북은 민족중시정책을 주장하면서 조선반도에 외세를 끌어들여 긴장을 조성하는 태도를 버릴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여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의존하고 북의 원칙적요구들을 거절하였으며 오히려 북에 대해 《진정성》과 《신뢰성》을 운운하며 《북핵》을 거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더이상 북남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북의 제안에 대해 성실한 자세를 보일것을 요구하였다. 해내외동포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것이라고 글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결정책의 철회와 북남관계개선을 당국에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도발자들은 어리석은 시비질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평화는 오직 강위력한 군사력으로

며칠전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군대가 진행한 로케트발사와 포사격훈련에 대하여 갖은 악담과 시비질을 해대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또다시 반공화국도발문서를 꾸며낸것은 정말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해마다 남조선에서 방대한 침략무력을 투입하여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긴장시키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 아닌가.

미국의 력사가 침략전쟁의 력사이며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의 파괴자, 교란자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도 미제는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타격집단까지 동원한 가운데 북침을 가상한 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이런 침략의 광신자들이 감히 누구보고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는 허튼 개나발을 불어대는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제국주의침략자들의 군화발에 짓밟혀 재부도 강토도 사람도 다 잃게 되는것이 세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침략하려고 정치군사적대결소동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만 있는다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평화는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걸로써도 실현할수 없다. 오직 자체의 군사적힘이 강해야 한다.

선군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존엄이며 그 누구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해칠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침략적도전이 우심해질수록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을 한계가 없이 더욱 강위력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안주뽐프공장 청년가공직장 직장장 강금현

흑백을 전도하지 말라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걸고들며 마치도 우리때문에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을 받고있는듯이 흑백을 전도하고있다. 이것을 과연 참을수 있는가.

미국이 쩍하면 《북의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떠들지만 사실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

자기는 핵무기든 무엇이든 다 가질수 있어도 남은 가져서는 안된다는 이 론리야말로 얼마나 날강도적인 궤변인가.

다른 나라와 민족을 해치는데 이골이 난 침략자들은 항상 이렇게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놈들이다.

대결미치광이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의로운 군사적억제력을 감히 제거하려고 날뛰는 적대세력에게 선군의 강위력한 총대맛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백승의 선군령도를 드팀없이 받들어온 우리 천만군민은 원쑤들이 어리석게 헤덤비면서 감히 신성한 우리의 령토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우리의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선군의 위력으로 오만무례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안기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경제강국건설의 인재들을 키우는 영예로운 초소를 지켜서있는 우리는 자신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교수교양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학생들모두를 훌륭한 과학자, 기술자들로만이 아니라 만일 적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자기 수령, 자기 조국을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총폭탄용사들로 키우는데 모든 정력을 깡그리 바치겠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교원 김성호

화해와 단합이 그리도 싫은가

우리가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을 발표한데 이어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해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물론 국제사회는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성의있는 노력의 발현으로 평가하면서 남조선당국이 그에 적극 호응해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대신 로케트발사훈련을 비롯한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조치를 걸고들며 외세에 동족에 대한 압박을 청탁하고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우리의 핵무력건설과 로케트발사는 날로 엄중해지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당이 제시한 전략적로선에 따라 진행되는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로서 그 누구도 거기에 대고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터무니없이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해 헐뜯으며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도발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을 보고도 남조선당국이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발광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묻건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도 이룩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우리의 제안을 그렇게도 받아들이기 싫은가.

이제는 남조선집권자들이 정신을 차릴 때가 되였다고 생각한다.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동족을 반대하는 불순한 정치적모략과 군사적도발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짓으로 될것이다.

순천시 평리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용범

선진영농방법도입의 지름길

◎ 와우도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농방법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와우도구역의 어느 농장, 어느 작업반의 포전에 가보아도 논벼들이 실하게 자라고있다.

례년에 없이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논벼들이 잘 자라고있는 현실은 지대적특성에 맞게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알곡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다.

이 문제를 중시한 구역책임일군들은 올해에는 지난 시기에 그 우월성이 확증된 성형모에 의한 논벼재배를 절반이상의 논면적에 받아들일 목표를 세웠다. 목표를 높이 세웠다고 저절로 일이 잘되여나갈수는 없는것이다.

책임일군들은 이 문제해결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제일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것은 성형알판을 마련하는 사업이였다. 근 20만장이나 되는 성형알판을 농장들에 보장해주자면 많은 자금이 있어야 했다. 그때 구역에는 벌려놓은 일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부 일군들은 이 영농방법을 당장 도입하는것은 지금의 형편에서 힘이 부치니 그 량을 줄였으면 하는 의견을 내비치였다.

그때 구역당책임일군은 참가자들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성형모도입은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켜내느냐, 혁명의 명맥을 이어가느냐 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입니다.

우리 일군들이 이런 관점에서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킬 때 못해낼 일이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고, 이 전초선에서 우리 일군들이 전초병이 되고 기수가 되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곧 사업분담이 있었다. 일군들이 앞장에서 서서 성형알판확보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면서 요구되는 자재들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기관, 기업소의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군중적으로 유휴자재를 수집하기 위한 된바람이 일어난 속에 계획된 성형알판이 확보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한편 책임일군들은 모기르기와 모내는기계개조 등 모내기에서 나서는 문제들에도 어깨를 들이밀었다.

여기서 잘한것은 모내기를 앞두고 모기르기와 모내기보여주기사업을 품을 들여 진행한것이다. 일군들은 모든 농장들의 작업반온실들에서 시험적으로 성형모기르기를 진행하고 성형모에 의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농장원들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니 실효가 더욱 컸다. 농장원들은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 맞게 모르는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선진영농방법에 대한 학습을 자주 진행하였다.

일군들은 이런 보여주기사업을 한두번 조직하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 과정에 농장원들은 선진영농방법에 대한 우월성과 기술적요구를 깊이 알고 실천에 옮겨나갔다.

이 나날에 성형모기르기에서 귀중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그것은 우선 습해가 없고 건조한 포전에 모판적지를 선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이였다. 실례로 모래메흙땅이면서도 될수록 높은 위치에 있는 포전에서 발상태로 모를 키우는것이 좋았다. 또한 품종별특성에 따라 씨뿌리는 시기를 바로 정하는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생육기일이 길고 낮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강한 품종은 4월 15일전에, 낮은 온도에 견디는 능력이 약한 품종은 4월 15일이후에 씨뿌리기를 하는것이 유리하였다. 이때 성형알판에 넣는 영양토를 건발흙은 30%, 질흙은 70%로 섞어 준비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니 영양성분을 보장하면서 떼장이 잘 형성되였다.

다음으로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파악하게 된것이였다. 씨앗을 뿌린 다음 싹이 돋아나올때까지 모판안의 온도를 25~30℃정도, 습도를 모가 한잎전까지는 80%, 한잎이후부터는 70%정도 되게 보장해주는것이 좋았다. 특히 모잎이 두잎부터 세잎사이에 모판리를 잘하는데 보다 큰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런 경험을 모든 농장들에서 받아들인 결과 올해와 같이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모가 튼튼히 자랄수 있었다.

일군들이 논벼초기생육을 중시하고 모내기성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지게 떠밀어주고있는것도 긍정할만 한것이다.

아무리 영양토를 가진 성형모를 냈다고 하여도 모의 영양상태가 담보되는것은 아니다. 기온이 떨어져 아지치기기일이 늦어지는 올해의 경우에 논벼의 초기생육을 보장하는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 문제를 놓고 장정민, 리근철동무를 비롯한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은 토의를 거듭하던 끝에 생육전반기 비료량을 더 늘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모내기가 끝난 후에 주던 비료를 논써레치기때에 밑비료로 주도록 하였는데 그 량은 6:4로 정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랭상모에 비해 출발대수가 적은 성형모의 특성에 맞게 포화수식물대기를 진행하여 유효아지를 확보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병해충예방과 구제도 종전과 달리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예찰초소를 논밭들의 면적에 따라 일정한 곳에 정해놓았지만 올해에는 병해충이 발생할수 있는 포전들에 집중적으로 배치해놓았다.

여기서 이들이 잘한것은 자기 지방에서 발생하는 병해충들의 표본을 농장, 작업반들에 내려보내주어 농장원들이 병해충의 생물학적특성과 그 피해막이방법들을 원리적으로 더 잘 알게 한것이다.

일군들이 년초부터 대용농약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든 결과 농장들에서는 병충해예방사업을 더 잘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들의 경험은 일군들이 한개 단위 농사의 운명을 걸머진 책임감을 간직하고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투쟁의 기수가 되여 완강하게 실천해나가는 여기에 선진영농방법도입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정 성 일

세포전역으로 달리는 마음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일떠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완공을 위하여 애국적지성을 바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해방직후 수령님의 애국의 호소를 받들고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운 세대들처럼, 전후 재더미로 된 빈터우에 맨손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운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처럼 선군시대의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합니다.》

청년들을 세포등판개척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남먼저 건설장으로 탄원한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 아래단위 부원 최승재동무는 돌격대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한 땀을 바쳐왔다.

그는 로력적위훈을 세우면서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할 결심밑에 돌격대원들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재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지원하였다.

인민봉사총국 창광봉사관리국 로동자 고수경동무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참가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함으로써 공사속도를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농업출판사 기자 김현숙동무는 대규모의 축산기지건설은 우리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건설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왔다. 그는 숭고한 애국심을 지니고 돌격대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스스로 알아보고 여러차에 걸쳐 보내줌으로써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였다.

세포군상업관리소 소장 홍세련동무는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보람찬 건설장으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돌보아주기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으며 종업원들과 함께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외교단사업총국 아래단위에서 일하고있는 최현아, 김혜경동무들과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생물안전성연구소 연구사 리성준동무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뜨거운 애국심을 바쳐가고있다.

이밖에도 체신성 아래단위 로동자 리승옥, 인민보안부 아래단위에서 일하는 심은희, 금성청년출판사 번역원 방은혜, 개성기상수문관측소 수문관측원 리진혁, 락랑원 로동자 김성희, 보건성 아래단위 부원 강혁, 전자공업성 아래단위 회계원 손애경, 인민봉사총국 설비관리소 로동자 리충일, 경흥관 로동자 류혜영, 교육위원회 책임부원 김경일, 교육위원회 아래단위 연구사 김규성, 혁명력사사진문헌사 아래단위 로동자 장은향,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연구사 조광철, 의학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 연구사 리성현,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창작가 김영남, 룡악산지도국 아래단위 부원 정성철, 대흥지도국 아래단위 로동자 김인철, 평양시식료일용공업관리국 평천피복가공사업소 로동자 함연화, 당창건기념탑관리소 로동자 김은주, 평양시구급병원 의사 김은경, 구장군청소년체육학교 로동자 서리화, 황해남도방송위원회에서 일하는 리혁진, 김책수산사업소 작업반장 윤정숙, 함흥시 동흥산구역 상하수도사업소 로동자 류정덕, 남포시인민보안국 항구구역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 김영철동무를 비롯한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포지구건설을 앞당겨 끝내기 위하여 불같은 지성과 노력을 다해가고있다.

날로 높아가는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지원열의는 새로운 조선속도창조로 들끓는 세포전역에 뜨거운 열기를 더해주며 건설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주고있다.

본사기자 허 명 숙

공화국의 전략핵무력은 더욱 강화되고 정예화될것이다

조선속담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사물현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외곬으로만 생각하는것을 념두에 둔것으로서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이다.

미국이 그렇게 놀아대고있다.

지금 미국은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타격단과 이지스구축함 《키드》호편대를 끌어들여 조선남해와 동해에서 남조선괴뢰들과 해상합동훈련을 벌려놓았다. 오는 22일부터는 제주도근해에서 련속 큰 규모의 해상합동훈련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를 파괴하고 3각군사동맹을 완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자는것이 이번 훈련의 근본목적이다.

문제는 미국이 핵전쟁연습소동을 감행하면서 그로 하여 자기의 범죄적정체가 낱낱이 폭로되게 되고 제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되리라는것을 똑똑히 타산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미국이 흔히 범하군 하는 병적인 착오이다. 힘만능주의라는 시대착오적인 병에 걸리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독선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에게 똑똑히 충고해줄것이 있다. 그것은 더이상 통할수 없는 패권주의적인 몽상에서 깨여나라는것이다.

미국은 걸핏하면 우리에게 도발자, 평화파괴자라는 감투를 씌워보려 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진짜 도발자, 평화파괴자는 바로 저들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만일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옳을것이다. 그렇게 하는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며 옳은 행동이다. 최소한 미국은 그러한 의향이라도 비쳐야 할것이였다. 특히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특별제안을 내보내고 뒤이어 공화국정부가 성명을 발표한 때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미국은 이와는 완전히 배치되게 놀아대고있다.

그야말로 조선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성의있는 노력과 의지에 대한 또 하나의 로골적인 도전이다. 또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이룩하려는 우리 겨레모두의 요구와 지향에 대한 란폭한 훼방이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올해초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조국통일의 력사적전환기를 마련할데 대한 현실적인 방도를 내외에 열렬히 호소하고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에 원칙적인 중대제안을 보낸 이후 북남사이에 화해의 분위기가 보이게 되였을 때에도 미국은 이에 찬물을 끼얹었고 종내는 그 분위기를 깨버렸다.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기편대를 남조선땅에 들이밀어 우리 지역을 폭격하는 훈련을 감행함으로써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의 싹을 짓밟아놓았으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정세는 팽팽한 전쟁전야의 문어구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번에는 핵항공모함을 들이밀어 북남사이에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대결국면을 조성하고있다.

미국은 력대적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았으며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될 기미가 보일 때마다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조작하거나 남조선괴뢰들을 합동군사연습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화해와 협력의 기운을 짓뭉개버리였다.

미국은 북남관계진전의 주되는 장애물이며 조선반도평화와 안전파괴의 장본인, 주범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미국은 우리가 핵을 계속 가지고있으면 평화와 안전을 절대로 보장받을수 없다는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늘어놓고있다. 남조선괴뢰들도 제정신없이 덩달아 맞장구를 치고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으며 구태여 그럴 필요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종식후부터 우리 나라가 핵보유국으로 되기 전까지 조미관계력사는 미국에 의해 우리 공화국이 침략을 당하고 우리 인민이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받아온 력사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하여 평화적제안들과 발기들을 수많이 내놓았다.

하다면 미국은 통일과 평화보장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피타는 절규와 열렬한 호소에 언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심사숙고하여 대한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그 절규와 호소에 매번 내댄것은 핵위협공갈이다. 조선반도가 항시적으로 긴장상태에 있는것은 핵위협에 기초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강행되여오고있기때문이다.

이런 미국이 오늘에 와서 마치도 우리가 핵을 가졌기때문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위험에 빠진것처럼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것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저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비단보자기로 감싸보려는노릇이다.

미국은 전략핵타격수단들을 순환식으로 계속 들이밀어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그것이 우리가 핵을 가졌기때문인듯이 증명해보려고 하고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핵을 가지고있지 않았을 때에는 왜 전쟁연습들을 계속 벌려놓았는가. 우리가 이제 핵을 내려놓는다고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있는가. 없다. 이라크와 리비아사태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낯간지러운 평화보장타령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지난 시기의 《포함외교》와 같은 핵위협공갈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우리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이것은 우리의 확고한 혁명적립장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불변의 립장과 의지를 다시한번 똑똑히 새겨두는것이 좋을것이다.

이 세상의 일은 제가 다 잘 알고 제가 다 처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이 《전략적인내정책》으로 저들에게 차례질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있는것은 머리통에 확실히 병이 들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시간은 우리의것이다.

시간이 흐르면흐를수록 우리의 전략핵무력은 더욱 강화되고 정예화될뿐이다.

도발과 압력증대로 미국이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리 경 수

우리의 소멸권에서 벗어날수 없다

◇핵전쟁광신자들의 광증이 또다시 발작하고있다.

미제는 지금 괴뢰군무리들과 함께 해상기동을 동반한 그 무슨 《항공기요격훈련》을 벌리고있다.

22일부터는 련속 큰 규모의 해상합동훈련을 강행하게 된다.

이번에 미제가 추종세력들을 거느리고 무모한 불장난소동을 벌려놓고있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또 하나의 로골적인 도전으로 된다.

장장 수십년을 헤아리는 국토분렬의 긴긴세월 우리 민족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망동과 방해책동으로 하여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유린당해왔다.

지금 미제를 괴수로 하여 벌어지고있는 그 무슨 《항공기요격훈련》이라는것도 핵공갈과 위협으로 우리를 어째보자는 흉심의 발로이다.

하지만 미제의 모든 망동은 오히려 전체 조선민족의 원한과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킬뿐이며 제스스로 화를 청하는 가소로운짓이다.

◇우리는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전통과 무적의 힘을 가지고있다.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먹어보려고 일으켰던 지난 조선전쟁때부터 이미 조미대결에서의 미제의 패배는 영원한 숙명으로 되였다.

오늘날의 조미핵대결 역시 다를바 없다.

미제는 저들의 군사기술적우세를 영영 과거의 구슬픈 추억으로 새겨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쑤격멸의 기상과 보복의지는 하늘에 닿고있으며 우리의 힘 또한 백배해지고있다.

최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군사훈련들은 원쑤들에 대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서리찬 증오와 분노, 참을길 없는 보복일념을 가슴후련히 폭발시킨 계기로 되였다.

특히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시험발사와 전술로케트발사훈련, 포실탄사격훈련 등은 종심깊은 우리 국방력의 강대함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승리를 확신하고있으며 미제와의 총결산을 통쾌하게 치를 시각을 고대하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은 그가 가까이에 있건 지구상 한쪽끝에 있건 그것이 개별목표이건 집단목표이건 마음먹고 골라가며 타격할수 있는 우리의 초정밀화된 여러가지 화력타격수단의 소멸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아프리카의 자주적발전에 관한

지역인터네트토론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아프리카의 자주적발전에 관한 지역인터네트토론회가 8일에 진행되였다.

민주꽁고 킨샤사의 기본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으며 그밑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아프리카의 자주적발전에 관한 지역인터네트토론회》라고 씌여져있었다.

기본토론회에는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서기장, 리사들과 민주꽁고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 주체사상신봉자들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이며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앙드레 로헤겔레 깔론다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을 맞으며 그이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인터네트토론회를 진행하게 되는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주체의 빛발로 20세기를 빛내이신 김일성주석께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대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력사의 주체로 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주체사상을 실천에 구현하시여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억압밑에 짓눌렸던 수많은 인민들에게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정녕 김일성주석은 세계의 평화와 진보, 련대성의 상징이시다.

민족의 번영과 자주적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은 20세기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을 따라배워야 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가야 할것이다.

이어 《김일성주석의 혁명적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절세의 군사전략가》, 《력사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위인들》 등의 제목으로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에질트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과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시여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지역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보급사업을 보다 광범히 벌림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노력

군대의 전투력 강화

로씨야에서 군대의 전투력강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간에 이 나라의 군부대들에서 약 250차례의 군사연습과 8 000여회의 실탄사격훈련이 진행되였다고 한다. 최근 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는 그동안 진행된 군사연습과 전투준비상태에 대한 불의의 검열은 로씨야련방무력이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로씨야에서 최근 새 세대 대공미싸일종합체 《C—500》의 구성요소로 되는 장거리요격미싸일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7일 이 나라 국방공업종합체 소식통은 시험을 통하여 제시된 목표와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국경횡단범죄와의 투쟁에서 협조

아세안나라들이 국경횡단범죄와의 투쟁에서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최근 브루네이에서는 국경횡단범죄에 관한 동남아시아국가련합(아세안)고위관리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시기 이 범죄와의 투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총화하고 국경횡단범죄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지역나라들사이의 협조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자동차생산전망

이란에서 현 이란년도에 자동차생산량이 지난 년도에 비해 약 2배 증가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6월 30일 신문 《테헤란 타임스》가 이에 대해 밝혔다.

새 회계년도 국가예산 채택

에질트에서 최근 2014—2015회계년도 국가예산을 채택하였다.

새 회계년도 예산은 2013—2014회계년도에 비해 예산적자를 2% 줄이며 나라의 사회경제적안정을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6월 29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학교들에서 입학률 증가

아이띠에서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2011년에 초등학교학생입학률이 1993년의 47%로부터 88%로 늘어났다.

6월 26일 유엔이 이에 대해 밝혔다.

반마약투쟁강화

베네수엘라에서 반마약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63t의 각종 마약을 압수하였다.

2005년이래 몰수된 마약의 총량은 550t이 넘는다고 한다.

로씨야대통령 브릭스의 역할을 높일것을 호소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이따르—따쓰통신과의 회견에서 브릭스성원국들(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의 역할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일부 개별적인 나라들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들을 뒤집어엎는 정책을 국제공동체에 강요하고있다고 하면서 브릭스성원국들은 그러한 시도들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국제금융체계가 딸라 즉 미국의 금융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있는 불공평한 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공동행동을 강화해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브릭스성원국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러저러한 대외정책적결정들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들을 질식시키지 못하게 해야 하며 모든 분쟁문제들에 관하여 문명하고 호혜적인 대화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공동으로 구상해야 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립장 천명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2일 한 TV방송과의 회견에서 적들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자기 나라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서방나라들이 마치도 제재가 이란을 핵협상탁으로 이끌어낸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제재로는 이란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평화적핵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앞으로 계속 취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협조

꾸바와 벨라루씨가 6월 24일 의약품생산 및 무역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보다 앞서 23일 앙골라와 산토메 프린시페가 범죄방지투쟁에서 협력을 강화할데 관한 2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 항의시위와 파업, 집회

— 이란의 수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15일과 16일 팔레스티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습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들이 벌어졌다.

시위참가자들은 《미국제무기들이 어린이들을 죽이고있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대량살륙만행을 단죄하였으며 일부 국제기구들이 이스라엘의 만행을 묵인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말디브의 말레에서도 15일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만행을 규탄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기발들을 불태우고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치면서 야만적인 공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얼마전 당국의 부당한 긴축조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채무위기를 구실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규탄하고 그러한 긴축조치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 영국 각지에서 10일 처지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에는 200만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임금을 올려줄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파업으로 학교들을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문을 닫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카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에서도 최근 교원들의 대중적인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에는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떨쳐나선 4만 1 000여명의 교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임금이 매우 낮은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교원들의 생활처지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파업으로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지되고 졸업시험이 취소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 일본 도꾜에서 얼마전 당국의 부당한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책동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약 5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을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시키려는 현 정권의 처사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러한 시도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결정을 반대하여 집회

오늘의 세계

악성전염병과의 투쟁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강하여 오래 살려는것은 누구나 품고있는 소망이다. 그러나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고있다. 급속히 전파되는 전염병들과 심각한 식량위기, 이상기후현상의 후과로 빈번히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들,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끊기지 않고있는 내전과 테로의 악순환 등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며 인류의 생존마저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그중에서도 각종 질병과 전염병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주되는 적이다.

최근에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에볼라비루스가 급속히 확대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서 헤매이다가 목숨을 잃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 6월 30일까지 기네와 시에라레온, 리베리아에서 759명의 감염환자가 발견되였으며 그중 467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서아프리카의 세 나라에서 동시에 에볼라비루스감염자가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볼라비루스는 1976년에 꽁고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악성전염병으로 알려져있다.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진것은 없지만 에볼라비루스는 감염환자나 동물의 피, 체액을 통하여 전염된다고 한다.

이 비루스에 전염되면 처음에는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머리아픔과 함께 고열이 나면서 피로감을 느낀다. 이후 구토와 설사를 하다가 몸의 속과 밖에서 출혈을 하며 끔찍한 모습으로 사망하게 된다. 증세가 나타난 후에는 보통 10일이내에 사망하며 사망률은 90%에 달한다고 한다. 아직 치료법과 왁찐이 개발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여서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있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신종코로나비루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이 나라 보건성은 전국적으로 신종코로나비루스감염자수가 5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중 190명이 목숨을 잃었다.

알려진바와 같이 신종코로나비루스는 2003년에 세계적으로 9 000여명의 감염자와 8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싸스와 류사한것이다.

이 비루스에 감염되면 싸스와 같이 고열과 기침, 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싸스와 다른 점은 심하면 급성심부전으로 넘어가며 설사와 같은 증세도 나타나는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신종코로나비루스는 감염속도가 싸스보다 빨라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세계를 긴장시키고있다.

얼마전에는 어느 한 나라에서 9살 난 소녀가 아메바비루스에 감염되여 사망하였다. 아메바비루스는 주로 호수나 강에 서식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숨진 소녀는 물놀이를 즐겨하였으며 발병직전에도 호수에서 수영을 하였다고 한다. 이 비루스에 대한 왁찐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사망률은 90%에 달한다.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이 비루스에 감염된 인원수는 132명이며 생존자는 3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각종 질병과 전염병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당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가 악성질병과 전염병의 전파,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를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지난 3일 에볼라비루스와 관련하여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서아프리카 11개국 보건상들이 모여 대책을 론의하였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에볼라비루스감염사례가 외딴 특정지역에서 발생하였기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이번에는 넓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했기때문에 관련국과 국제사회가 많은 지원을 시급하게 투입해서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질병확대를 차단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회의에서는 에볼라비루스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협력방안이 론의되였다.

시에라레온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전국비상그루빠가 조직되였으며 여러 나라들의 보건부문에서 환자격리 및 치료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전염병에 의한 피해는 혹심하지만 그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세계 많은 나라들의 진지한 노력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것이며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미국에 왜 등을 돌려대는가

얼마전 미국이 프랑스의 BNP은행에 제재를 가하였다.

이 은행이 딸라에 의한 결제가 금지된 나라들인 수단, 이란, 꾸바와 딸라로 거래하였기때문이다. 90억US$라는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되였다.

이에 대한 프랑스정부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프랑스정부는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수 있다고 하면서 국제결제에서 미국의 딸라대신에 유로를 최대한 리용할것을 권고하였다.

프랑스국가은행 총재는 국제무역결제에서의 통화의 다양성을 보장할것을 여러 나라들에 제안하였다. 프랑스의 또딸원유회사 리사도 원유대금을 딸라로 결제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립장을 밝혔다. 한편 프랑스재정상은 미국이 딸라의 위력을 토대로 다른 나라의 은행에 무자비한 권한을 휘두르고있다고 하면서 딸라중심주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프랑스재정성은 딸라대신 유로를 적극 활용할데 대한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결국 미국은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래 다른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화폐로 결제하게 되면 그것은 자국화폐의 구매력을 높여주고 국제화를 촉진시키며 가치인상을 가져오는데서 유리하다. 경제에서 제노라 하는 미국이 이것을 모를리 없다. 그러나 미국은 반미적인 나라들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체질화되였는지 저들에게 유리한것도 무조건 차단시키는 어리석은 놀음을 벌리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비록 피해를 보더라도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와는 기어코 해보겠다는 피해망상증에 걸린 환자처럼 놀아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미국이 보란듯이 딸라배척바람을 세차게 일구고있다.

유럽에서의 딸라배척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였다.

미국은 지난 시기 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불공정한 국제통화제도를 만들어놓았다. 그로 하여 유럽은 많은 경우 미국에 재정적으로 복종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였다. 미국은 유럽지역에 여러가지 정치, 경제, 군사적기구를 만들어놓고 저들이 마치도 유럽의 통치자인것처럼 행세하여왔다. 이것은 유럽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많은 유럽사람들이 유럽이 미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미국딸라의 지배적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척시켜왔다. 마침내 2002년 1월 1일부터 유럽지역에서 유럽의 단일화폐인 유로가 정식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외신들은 이것을 유럽통합을 다그치며 《금융분야에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것》이라고 평하였다.

프랑스의 BNP은행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제재조치는 유럽의 딸라배척기운에 키질하는 결과를 안아오고있다.

미국의 딸라지배체계가 허물어지고 그의 가치와 신용이 크게 떨어진 조건에서 미딸라에 의한 결제방식에서 벗어나 민족화폐를 리용하려는 국제적움직임들이 강화되고있다.

로씨야는 대외경제분야에서 루블결제체계수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얼마전 로씨야재정성 부상은 로씨야주재 이란대사와 두 나라사이의 무역 및 경제협조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목적밑에 합동금융체계를 내올데 대한 문제를 론의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 미국딸라로 모든 무역결제를 해오던 방식으로부터 두 나라사이의 민족화폐로 직접 경제무역거래를 실현할수 있는 쌍무적인 금융체계를 수립하는데로 이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란대사는 합동금융체계가 수립되면 쌍무적인 경제협조가 더욱 발전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하였다.

또한 로씨야는 중국과 두 나라의 민족화폐결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이미 로씨야와 중국은 루블—인민폐결제제도를 도입한 상태이다.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도 미국딸라대신 지역적범위의 단일화폐도입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알바성원국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쑤끄레를 무역결제화폐로 정식 리용하고있다. 전망적으로 그것이 대륙의 모든 나라들에 도입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중동의 원유생산국들과 중국, 프랑스 등 나라들은 2018년부터 중국화폐와 유로, 페르샤만지역에서 새로 내오려고 하는 공동화폐 등으로 일종의 합성화폐를 만들어 그것으로 원유대금결제를 하기로 하였다. 뿐만아니라 상해협조기구 성원국들이 공동의 화폐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며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로 구성된 브릭스는 개발은행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로씨야외무성의 한 전문가는 세계는 지금 딸라를 대신할 화폐를 찾고있다, 브릭스성원국들이 개발은행을 창설하는것도 그런 경향의 하나이다, 본질적으로 이 개발은행의 목적은 미국 그리고 딸라에 도전하는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그런즉 국제적인 딸라배척움직임을 조성하는데 한몫하고있는것이 미국자신이라고 말할수 있다. 딸라주머니를 흔들어 세계제패를 실현하겠다고 꿈꾸던 미국이 딸라지배체계의 붕괴와 함께 멸망의 길로 다가가고있다.

김 수 진

ㄱ-41113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